

[www.peaceone.org](http://www.peaceone.org)

#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0년 5월 Vol.194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위해

**현안** 방위비분담금, 군산 미군기지

**특집**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 의미와 과제  
회원들의 힘으로 만드는 평화공원

**비핵평화** 김형률 추모 프로젝트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





- 1 [평통사 20장면 + ] 2015년 '위안부' 야합 규탄

- 2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중재자 아닌 당사자가 되어야 + 고영대



## [비핵평화]

- 6 우리는 지금 왜 김형률을 기억해야 하는가 + 권규녕  
8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 + NPT&TPNW연구모임



## [현안]

- 11 방위비분담금 53% 인상도, 13% 인상도 터무니없다 + 기자회견문  
16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그레이-ER 배치계획 철회해야 + 조승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8 내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 김인아  
20 민들레 흩씨를 퍼트리는 바람처럼 - 평통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 + 이훈



## [특집\_효순미선 평화공원]

- 22 효순미선 사건 경과와 과제 + 박석분, 유영재  
32 "이게 평통사의 힘이구나!", 회원의 힘으로 만드는 효순미선 평화공원 + 김은주

## [소식]

- 37 광주/군산/나주/대구/목포/보령/부천/순천/부산/서울/인천/논산계룡/성남용인

- 45 [회비와 후원금] 감사합니다.

- 47 [결산보고] 3월, 4월

##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축 기도에 맞선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 투쟁

2015



2015. 12. 28. 외교부 앞. 한일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나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한일 군사동맹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위안부’ 문제를 졸속 야합 처리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도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합의는 해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굴욕 외교의 전형이었다.

이 같은 기만적 야합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강압하여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2016년 11월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관철하고 2017년 4월에 사드 미사일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현실화시켜 나갔다.

평통사는 한일 위안부 야합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사전 정지작업임을 간파하고 그 본질적 문제와 이후 파장에 대해 기자회견과 집회, 논평 등을 통해 가장 앞장서 그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편집자 주〉 2014년 평통사 창립 20주년 기념책자에 실렸던 평통사 20장면에 이어 2015년 이후 주요 활동을 연재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중재자 아닌 당사자가 되어야

문 정부의 총선 승리에 대해 북측도 남북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길 주문  
문재인 정부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시간 없어  
북미가 핵 대결을 다시 한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무효화한다는 뜻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야  
핵무기금지조약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법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자며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건 모순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해법은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으면 되는 문제

인터뷰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 정리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Q.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에 합의한 지 2년이 흘렀다. 판문점 선언 2주년, 평가를 한다면?

그 의의야 이루 말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 바로 전 해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그랬던 것이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축을 통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만큼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Q.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남북 교착상태의 원인, 진척 없는 북미협상 때문일까?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곧 싱가포르 성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에 있는데,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미래 번영 보장이라는 뜬 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정작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대북 제재를 유지, 강화하고 있는데 교착상태의 근본 원인이 있다. 트럼프 정권이 과연 싱가포르 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

<편집자 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가톨릭평화방송에서 고영대 공동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완하여 실었습니다.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을 북미협상 교착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교착된 북미관계를 견인해야 남북, 북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을 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열어나갈 힘을 준만큼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사업에 나서야한다. 그러면 북미관계도 따라서 열릴 것이다.

Q. 북미협상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오면서 북미 간 대화에 물꼬가 터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북한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나서지 말라. 북미 당사국이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밀어내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북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밀어내고 있다. 중재자는 잘못된 거다.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북미관계 문제는 단순히 북미 사이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남한을 대표해서 당사자가 돼야 하는데, 중재자로 스스로의 위상을 축소하고 있어 안타깝다. 평화협정만 하더라도 남한은 당연히 당사자다.

문재인 정부가 철도 연결문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서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자세는 당사자는커녕 중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도 포기하는 것이다.

Q.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는데, 북한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남북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나서라는 한국민의 뜻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나?

Q. 오늘 동해 북부선 철도연결 관련해서 남쪽 지역 최북단 제진역에서 추진 기념식도 열렸는데, 이런 대북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성에 달려있다. 트럼프 정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겠다고 한다면 결코 타개책이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남았고, 트럼프 정권은 말기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움직이겠는가? 시간이 없다.



Q.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담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인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다시 추진해야 할까?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기본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행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확고하게 채택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철부지 같은 얘기다. 북미가 핵 대결을 70년 동안 해왔는데 다시 핵대결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 공멸의 길을 가자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고자 하는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나 대만 등의 핵무장을 부추겨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얘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위배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Q.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를 위한 국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핵무기금지조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국제서명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국가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불법화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인류의 염원인 핵군축과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취지로 한창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었던 2017년 7월 7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법이다. 80개국에서 서명을 했고, 4월 25일 현재 36개국이 비준을 마쳤는데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5대 핵보유국이 핵확산금지조약 6조에서 규정한 핵 군축 의무를 무력화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촉진시키고 핵사용을 막기 위해 국제적 규범으로 만든 조약이 핵무기금지조약이다.

Q. 14개 국가가 추가 비준을 하면 발효되는데, 남북한이나 미국, 중국, 일본의 가입여부는?

모두 가입을 안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투하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1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나라다. 한국은 남북, 북미 간 극한 대결로 제2의 피폭국가가 될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기도 하다. 그래서 빨리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함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폐기하고, 남북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한반도 비핵지대를 건설함으로써 전 세계 비핵화를 추동해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Q. 국제서명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나?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서명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평통사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발기하고 천주교 쪽으로 팩스 크리스티 한국지부가 함께하는 등 30여 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다.

Q. 지금 북미협상만큼이나 어려운 게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협상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까지 강행하는 등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해법은?

결론적 이야기하자면 안주면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미소파 5조에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미국에 시혜,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안 줘도 된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 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만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 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나?

더구나 미군은 이미 준 방위비분담금도 쓸 데가 없어서 2조 원(군사건설비 1조8310억원, 군수지원비 1588억원)이나 남아도는 거액을 비축해 놓고 있는데, 더 줄 이유가 없다. 즉각 우리 국고로 환수해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당한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비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사용해야 마땅하다.

Q.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남북통일에서 오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비핵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주통일을 통해서 남북 간 대결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통일은 바로 평화를 위하는 길이고 평화는 바로 통일을 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는 지금 왜 김형률을 기억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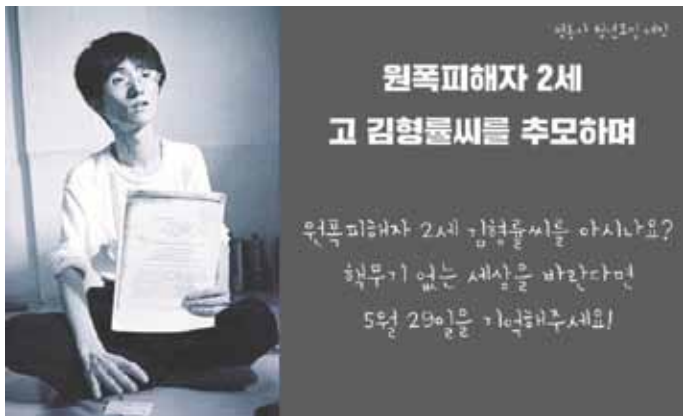
## - 김형률 추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권규녕 청년회원

2020년은 한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한지 75년이 되었고, 6.25 참상 70년이 흘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4.19 혁명은 60주년을 맞았고,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도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건의 가치나 의미가 그런 것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때보다 그 날의 사건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일부만을 선택하여 강조함으로써 그 외의 사건들을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잊어서는 안 될, 소외되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한국원폭피해자 2세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 김형률씨가 돌아가신지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터진 날로부터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시작된 지 75년이 된 것입니다. 원폭피해의 고통은 직접 피폭당한 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통은 고 김형률씨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형률씨는 태어날 때부터 폐 기능의 70%를 상실하는 등 온갖 병고에 시달리다가, 서른 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고통이 원폭피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섯 살에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김형률씨는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조직하여 원자 폭탄 유전병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는 한국원폭피해자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나의 질병은 역사적인 것이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다” 세상에 외쳤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끈 채 온 힘을 다해 활동했던 김형률씨는 200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







5월 23일 합천에서 열린 고 김형률 추모제

제연대협의회’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귀국한 후 닷새 만인 5월 29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등록된 피해자는 1300여 명 정도지만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못한 환우까지 생각하면 1만3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더하여 원폭 피해자 3세까지 생각한다면 국내 2만~3만 명이 원폭피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일정부는 원폭피해자 2세를 포함해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원폭피해자 2세, 3세는 2016년 국회를 통과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원하는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평통사 청년모임은 고 김형률 15주기, 원폭 75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은 문제를 알려 김형률씨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작년처럼 직접 추모제에 참여하면 좋았겠지만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2005년 5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한 글을 구글 폼에 올리고 추모, 혹은 감상의 댓글을 받는 방식으로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추모 프로젝트를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통사 청년들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핵전쟁 위협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원폭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끔찍한 핵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구술채록활동, 핵무기금지조약 서명 운동,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홍보 활동은 모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활동에 회원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해주신다면 그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

번역 : NPT&TPNW연구모임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10일 핵전력 및 미사일 방어 증강에 초점을 두고 신무기 연구개발비를 사상 최대로 배정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중 핵무기 현대화에 배정된 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대비 18%나 늘어난 289억 달러라고 한다. 에너지부 산하에서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 예산은 약 20%가 늘어난 198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 중 156억 달러가 핵무기고 지원과 핵탄두 수명 연장 등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다. 핵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전력 대폭 강화에 나선 것이다. 5월 21일에 공개한 '미국의 대중국전략보고(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도 '전략 핵무기 3축 체계'의 현대화를 천명했다. 미국의 핵무기 전력 증강이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핵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일 것임은 물론이고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큰 장애가 조성된다는 뜻이다. 북의 비핵화 수준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와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가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평통사 실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대한 글을 번역 소개한다. 영어 원문은 『ASSURING DESTRUCTION FOREVER: 2019 EDITIO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2019. 4)의 20~21쪽이다. 글쓴이는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 그룹(The Los Alamos Study Group)의 Greg Mello다.

분류 장벽을 식별할 수 있는 한,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는 약간의 지연은 있으나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가시적 예외는 콜롬비아 급 잠수함 프로그램에서 올 수 있다. 의회 회계 감사관들은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1150억 달러의 예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에 더해 현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두 가지 추가적인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탄두(W76-2)이다. W76-2\*는 2018년 2월에 정식 생산에 들어가, 이번 회계연도에 완성될 예정이지만 배치를 위한 예산은 미국 의회가 거부 할 수도 있다. 둘째는 대안분석 중에 있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로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 해군은 이 무기를 반대할 수도 있다.

2개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GLC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가 각각 2019년 8월과 11월에 예상된다.\*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은 빠르면 18개월 이내에 배치될 수

〈편집자 주〉 'NPT & TPNW 연구모임'은 202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가와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서명운동을 위해 구성한 프로젝트 팀이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평통사 상근자들과 청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있다. 기존 토마호크 시스템에 기반한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다. 이들 제안된 미사일을 위한 탄두의 선정과 상태(The choice and status of warheads)는 알려지지 않았다. 12년 전 미국은 2,000개 이상의 온전한 상태의 W80-0과 W80-1 순항미사일 탄두를 보유하고 장거리 스탠드오프(LRSO) 순항미사일 탄두(W80-4)는 W80-0과 W80-1 설계의 변형이 될 것이다. 만일 추진된다면 어떤 해상 발사형 순항미사일이든 유사한 탄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생각되는 안으로는 “적절한 대체물이 확인될 때까지” B83-1 고위력 중력폭탄을 지금처럼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한편 탄두실험실, 시험시설, 탄두 생산장은 현재 병행 가동 중에 있는데 종종 그것들은 노후화 된 기존 시설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의 상당 부분은 광범위한 현대화 과정에 있으며 추가적 무기에 대한 제안이 없더라도 2020년대 초에 극적으로 강화될 새롭고 까다로운 관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탄두 복합단지 전반에 걸쳐서 수 천명의 새로운 기술자가 고용 중이다. 캔자스 시 시설의 몇 생산 라인은 약 14,051평 공장부지를 새로 임대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3교대로 일하고 있다.

기존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추가된 새로운 범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핵지휘 통제통신(NC3)체제, 지상기반전략억제(GBSD) 프로그램(새 재진입체인 Mark21A 포함)에 추가; 플루토늄 탄두 코어 생산(이제는 하나 대신 두 개의 제안된 사이트에서); 기존 탄두의 유지 보수; 그리고 전략 폭격기(기존 B52를 위한 새로운 엔진).

계획된 탄두와 운반 시스템 스케줄은 작년과 비교해서 다소 불변인 것처럼 보인다. 추가적 연구를 위해 비록 새 플루토늄 탄두 코어(핵심) 생산능력의 제공이 1-2년 지연되었지만, 의회의 최우선 순위인 사일로 기반 미사일을 위한 핵지휘통제통신(NC3)체제의 전체 업그레이드 완성은 2037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W76-1 수명연장프로그램은 새로운 퓨즈를 사용해서 잠수함 발사 탄두의 정확도를 높이고 표적의 확장을 꾀하는 것-나아가 저위력 W76-2 가능하게

---

\* W76-2 : 2019년부터 트라이던트 II에 50발의 W76-2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한스 크리스티안스 블로그). 저위력 핵탄두는 약 20킬로톤에 상당하는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기준으로 그보다 위력이 낮은 핵무기를 말한다. 1킬로톤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한다. W76-2 저위력 핵탄두는 5~7킬로톤으로 추정된다.


\*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계획 :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지 약 2주만인 2019년 8월 18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12월 12일에는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1987년 12월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핵군축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들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등 아시아 지역동맹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고자 하는 바-은 2018년 말에 완성되었다.\* 새로운 퓨즈 기술은 2020년에 시작될 운영유지 동안 고위력 W88 잠수함 발사 탄두에도 적용될 것이다. 기존 미니트맨 미사일과 시설은 진전되거나 완료되었다.

2019년 회계연도 비용과 추산된 미래 비용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19년 회계연도 전체 핵무기 지출은 연간 약 340억 달러로 늘어 났으며, 이는 2018년 회계연도 대비 13%가 늘어난 것이다. 핵무기는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지출(US defense account spending), 8920억달러의 약 4 %이며, 2020 년 말까지 6~7%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향후 10년간 핵무기 지출에 대한 추산(4940억 달러)은 2년 전(4000억 달러)보다 24% 늘어난 것이다. 10년 후에는 더 많은 생산량을 포함 할 것이지만 또한 비용이 증가했고 더 많은 현대화 요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제안된 두 개의 중거리 미사일 중 한 개의 생산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들은 이 총계에 추가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환경적 부채 추산과 성능 향상된 무기 비용을 고려한다면 -제안된 중거리 미사일과 탄두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예상되는 30년간의 미국 핵무기의 총비용은 2조 달러를 넘는다. 올해 핵탄두를 위한 에너지부 예산 요구액은 불변가격으로 2019 회계연도 대비 12%가 늘어나 7년째 비용 상승과 또 하나의 사상 최고로 기록되고 있다. 2018년 말 에너지부 탄두 비용 추정치는 2017년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450억 달러가 많은 것인데 이 증가액은 25년간의 탄두 비용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상호 운용 가능한” 탄두 프로그램을 지상기반전략억제의 공군 전용 탄두(W87-1)로 대체했다. 상호운용가능한 탄두처럼 다탄두 업로드 능력이 있는 W87-1은 Mark 21A 재 진입체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구성품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pits”(핵탄두에서 플루토늄을 들어가는 핵심 구성부분)를 사용하며 충분한 능력의 pit시설의 운영을 요구한다. B61-12 중력탄, W80-4 탄두가 장착 된 장거리 스탠드오프(LRSO) 순항미사일 및 B21 레이더 폭격기 함대의 획득은 스케줄보다 다소 지연 될 수 있다. 컬럼비아 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프로그램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는 1978년에 개발한 100킬로톤의 고위력 탄두 W76-0형, 2008년에 100킬로톤을 90킬로톤으로 감소시킨 W76-1형에 이어, 2018년에 다시 5~7킬로톤으로 감소시킨 저위력 W76-2형 핵탄두 개발을 성공시킨바 있다.

## 방위비분담금 53%(13억 달러, 1조 5,925 억원, 미국안) 인상도, 13% 인상(9.6억 달러, 1조 1,740 억원, 한국안)도 터무니없다.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실무협상팀이 잠정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퇴짜 놓고 13억 달러(1조 5925억 원, 53% 인상, 올 4월 대미 평균환율 1,225 원 적용)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네 가지 시나리오 검토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53%를 인상하든,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13%를 인상하든 모두 그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증액일 뿐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안 모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한국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요구 터무니없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53%(5536억 원) 또는 13% 올리는 것은 그동안 한미 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 기준으로 삼아 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국방예산 증가율, 또한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증가율 그 어느 것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다.

8차,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 사례를 적용할 경우 2018년과 201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와 0.4%로, 53% 인상안도 13% 인상안도 터무니없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국방예산 증가율(8.2%)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7.4%로 이를 적용할 경우 53% 인상안도 13% 인상안도 터무니없다.

미 국방부 발간 「미군 운영유지비 예산 개요—2020회계연도」에 따르면 2019년도 주한미군 운영비(인건비 제외)는 2.0%가 줄었고 2020년도에는 0.7% 증가에 그쳤다. 이를 적용할 경우에도 53% 인상안도 13% 인상안도 터무니없다. 더욱이 현재 2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인 채로 남아있다. 주한미군 군사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집행현금 3437억 원(2018.12), 불용액 1250억 원(2009~2019),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에서 미집행된 현물지원분 9641억 원, 협정액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해 발생한 감액누계분 5570억 원 등 총 1조 9898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 2년 치에 해당한다.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근거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13억 달러가 관철된다면 한국은 협정기간 2020~2024년 사이

에 최소 약 8조 3000억 원(68억 달러, 매년 2.2% 물가상승률 적용 시)에서 최대 9조 1500억 원(75억 달러, 평균 7% 안팎의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시)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가 당초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강요가 “한국에 대한 강탈”이라는 미국 언론의 주장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안대로 13%를 인상해 준다고 해도 11차 협정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에 최소 약 6조 1338억 원(50억 달러, 2.2%의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시)에서 최대 약 6조 7600억 원(55억 달러,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시)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요구안, 한국 인상안 어느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도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강탈과 탐욕은 50억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과 여기에 드는 미국의 군사비는 한국에 대한 끝없는 갈취로 이어질 것이다.**

11차 협정 기간에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만으로도 이미 50억 달러를 훌쩍 상회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에 국한하지 않는다. 향후 3년간(2020~2022) 미국산 무기도입비로 매년 약 4조 원(무기정비비까지 합치면 5조 원) 이상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화비도 줄잡아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들 비용만 53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전투병력 파견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남중국해 한국군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관련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지난 4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의회에 ‘(대중국 재래식전력) 우위 되찾기-국방전략이행을 위한 투자계획(회계연도 2022~2026)’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밀타격전력과 미사일방어, 미군 주둔 분산, 훈련, 군수 등의 투자에 2021~2026년 간 201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미국) 경제파멸이 국방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증강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출자 자금(a new pool of funding)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질 것이다”(2020.4.5)라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선임고문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공동출자자금 조성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임은 물론이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의 상원 인준청문회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5월 7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 요구가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용 조성 차원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역외작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한미소파 위반이다.

## 한국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견어찬 트럼프 정권을 규탄한다.

트럼프는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조약을 훼손하고 있다. 트럼프가 13% 잠정합의안을 퇴짜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방위비분담금의 전용금지' 등 한국 국회의 요구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리한 개정 내용"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때문이라고 한다(헤럴드경제, 2020.4.17).

우리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작전지원' 등 추가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국가재정법, 한미소파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상화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전용 및 집행, 이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와 주권 훼손을 막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여기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정권 이전의 3차례(8, 9, 10차) 협정의 제도개선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11차 협정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위

비분담금을 해외주둔미군의 비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줄기차게 항목 신설을 요구해온 '준비태세'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시킬 가능성이 크며,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처럼 군수지원이나 군사건설에 소항목으로 '준비태세'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10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군수지원 차원에서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목욕·위생·세탁·폐기물처리 등 용역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행약정을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해외주둔미군의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배다.

## 트럼프 정부는 불법적인 사드 운영비로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중단해야 한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 사드 운영비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2018년에 5만 달러의 방위비분담금(미집행 현금)을 사드부지의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9차(2014~2018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사드부지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어 불법이다.

그런데도 미 육군 「2021회계연도 군사건설 예산사업설명서」는 미국이 2021년도에도 4900만 달러(58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이자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한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위반이다.

한편 미 미사일방어청 「2021년도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2020년도 미국 사드 관련 예산은 시험비용 2988억 원, 획득비용 4986억 원, 사드 7개 포대의 운영유지비 1062억 원, 연구개발비 2385억 원 등 모두 8731억 원이다.

이 중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는 사드 1개 포대 운영유지비 158억 원과 연구개발비 2385억 원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그 명분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구실 삼아 방위비분담금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1개 포대가 남한에 추가 배치될 경우 주한미군의 연간 사드 운영유지비 316억 원과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3000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설계를 쓰고 남은 돈)이 남아있고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 수취가 매년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비용으로의 불법전용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비 전용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한미소파,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계획된 사드부지 공사비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철회해야 하며 미집행현금과 그동안 수취한 이자소득을 모두 우리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인

##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즉각 철회하라.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을 끝내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 10차 협정 만료와 그에 따른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금 부족은 주한미군이 3437억 원의 미집행현금(방위비분담금)을 보유하고 있고 2020회계연도 주한미군의 운영유지예산도 22억 달러(2조 6700억 원)에 달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10차 특별협정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는 것은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경비를 미국이 책임지도록 한 한미소파 5조 위반이다.

1,500여 명에 달하는 한국노무단(KSO)의 무급휴직 조치도 한국노무단 임금을 미국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한국노무단지위협정’ 위반이다.

또한 이번 무급휴직 단행은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미국과 한국이 지급해 온 그간의 관행에도 어긋난다. 6차 특별협정의 경우 1~3월까지 미국이 자체예산으로, 4~6월까지 한국이 국방예산으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선지급했다. 9차 특별협정의 경우에도 1~4월까지 미국이 자체예산을 전용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번 무급휴직은 또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는 군사상의 필요가 아닌 한 한국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무급휴직이 군사상의 필요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며,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4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번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이행약정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3권의 전면적 제약으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강요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위헌·위법적인 한미소파 제17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미국의 13억 달러 요구 안이든 한국의 13% 인상이든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안에 불과하며, 우리 재정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차(11조 7000억 원), 2차(14조 3000억 원)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실직될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와 특수직 고용자, 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13억 달러(1조 5925억 원)는 비정규직 노동자 318,5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큰 돈이다. 13억 달러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 159,250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나눠줌으로써 파산을 막고 80만 명의 고용(소상공인 1인당 5명 고용 가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만약 13% 인상안(1조 1740억 원)을 민생에 돌린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234,8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소상공인 지원에 돌려쓴다면 117,400명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희생해 가면서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시혜적인 돈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나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기지 임대료 등을 받아내야 한다. 1조 원 안팎의 기지 임대료를 받아낸다면, 이와 함께 방위비분담금 미 집행금 2조 원을 환수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지 않아도 될 우리 돈을 가지고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와 숫자 놀음을 하는 바보 짓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가재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그레이 이글-ER 배치계획 철회해야!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 그레이 이글 보다 대북 정찰력과 타격력이 향상된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ER이 빠르면 올 9월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그레이 이글-ER의 배치는 정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군 관계자들은 그레이 이글-ER의 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에 대한 제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 공격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그레이 이글-ER의 배치가 주한미군의 주장대로 정말 정찰을 위한 것인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그레이 이글은 공격무기가 아니라 정찰기?

주한미군은 현재 배치된 그레이 이글에 대하여 “아파치헬기와 통합 운용되는 ‘무인 정찰기’”라며 공격보다는 정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찰용으로 운영하겠다는 주한미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배치 때부터 사실상 북한 지휘부 참수 작전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레이 이글은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암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한 프레데터를 개량한 드론이며, 소형 정밀유도폭탄 GBU-44/B 4발, 헬파이어 미사일 4발 등 적지 않은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레이 이글(MQ-1C)를 개량한 그레이 이글-ER은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그레이 이글-ER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GBU-44/B 등을 포함, 약 1t의 폭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정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무인공격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이미 AAI RQ-7 shadow 등 다수의 무인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군 역시 사단급 무인기인 KUS-9,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RQ-101), 탐지거리가 200~250km인 서처-II, 중고도 무인기 글로벌 호크 등 이미 다수의 무인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레이 이글-ER의 무기탑재량으로 보거나 한미연합군이 이미 충분한 무인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레이 이글을 단순 정찰용으로 운영한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남북/북미 합의에 역행하는 불법적인 그레이 이글-ER 배치 철회해야

미국은 2020년 1월 3일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RQ-9” “리퍼”로 불리는 드론(drone)을 통해 적의 핵심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인 공격기를 통해 북한 정권 수뇌부나 지휘관에 대한 제거작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1순위는 바로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그레이 이글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 수뇌부나 지휘관에 대한 제거 작전(일명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 사용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선제공격 개념이다. 따라서 참수작전은 평화통일을 명시(전문, 4조)하고 침략전쟁을 부인(6조)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선제공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2조 4항) 등 국제법 위반이다. 또한 참수작전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체제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남북,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군산미군기지에 그레이 이글-ER 무인공격기 배치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하여 “미제가 남조선에 새로운 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차단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 기어이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데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화 대변인 역시 2017년 3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하여 “관련 국가가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브레이크를 밟고 불을 끄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하여 “불 위에 기름을 부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이렇듯 그레이 이글-ER의 배치는 북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핵대결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레이 이글-ER 배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그레이 이글 역시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 내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김인아 평통사 서울청년모임 대표

작년부터 나는 청소년들을 만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주 청소년들과 만났고, 이달에는 풀무 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 진행이라 걱정이 많았다. 내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친구들이 장시간동안 집중할 수 있을지. 전주 청소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 강의와 기조는 같았다. 이번에도 평화와 통일이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풀무 평화 소모임 친구들에게 더 적합하게 강의 내용을 많이 수정했다. 강의 제목을 '절실한 이유'로 설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통일은 우리에게 절실하다. 분단이 야기하는 비극이 심각하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자주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으며, 우리는 핵전쟁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 아무리 삶을 주체적이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언제라도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미 고통 받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였다.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노동권이 미국의 요구를 한국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순간에 침해당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미국의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상 우리 삶의 기반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소성리 사드를 봐도 그렇다. 사드 반입으로 소성리 할머니들은 한순간에 평화를 잃었다. 효순·미선 장갑차 압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주한미군은 두 여중생을 보았음에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미국이 재판권을 손에 쥐고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2년,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최초의 촛불 혁명이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언제든지 나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당한 분노와 외침을 향한 혐오발언들이 쏟아지는 것을 종종 본다. '빨갱이, 중북'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정당함은 사라진다. 그들이 왜 광장으로 나와 목 놓아 주장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는 무참히 짓밟힌다. 낙인찍는 순간, 그들은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존재,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치부되었다.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차단되지 않고, 공론화되고, 수용되기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오기 위해선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 트




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한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많은 이들은 핵전쟁 위협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2017년 북한과 미국은 서로 책상 위에 더 큰 핵단추가 있다며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다행히도 그 다음해에 남북미 정상들의 회담과 합의로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지는 듯 했다.

한국 전쟁 중에도 두 번이나 핵무기가 사용될 뻔 했다.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전투기들이 지금도 북한 근처에까지 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유사시에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한반도는 한국원폭피해자를 통해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험했다. 원폭피해자의 고통이 2세, 3세까지 유전되고 있다. 현대의 핵무기는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한다. 제 2의 원폭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강의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통일의 이유로 경제적 이익만을 부각시켰다고 했다. 내 강의를 듣고 평화와 통일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절실한지를 알았다고 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분단을 넘어서야한다는 관점에 공감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왜 평통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합천 구술채록 캠프에 다녀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였음에도 내 진심이, 내 절실함이 친구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 좋았다.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를 믿어주고 이런 멋진 이야기를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저를 믿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강의를 끝나고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왜 눈물이 고였는지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잘못된 통일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비판하고, 내 눈 앞에 들어오는 무기를 온 몸으로 막는 일은 힘들고 고되다.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답답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변하였다. 내 절실한 이야기로 여섯 친구들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 강의가 낳은 결과는 엄청나다. 내가 변했고, 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의 생각이 변했다.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앞으로 만나고 싶다. 나의 문제의식을 나누고 힘을 모을 것이다. 이 절실한 문제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세상은 변한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분단 이데올로기로 묵살되지 않는 세상을, 한국원폭피해자들이 바라는 핵 없는 세상을, 우리의 자주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는 세상을 함께 그리면서. 

# 민들레 홀씨를 퍼트리는 바람처럼

## - 평통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이훈 성공회대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도토리' 소모임원, 평통사 청년 회원

2019년 여름밤, 학교 친구들과 캠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친구들 중에는 평통사에서 활동하는 인아씨가 있었다. 나는 “인아씨, 요새 뭐가 그렇게 바빠요?”라고 물었다. 인아씨는 합천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청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한국원폭피해자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다. 성공회대학교 안에 관련 소모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나에게 실망스러웠다. 같은 2019년,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같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 나는 주위의 온갖 청년들을 합천에 함께 가자고 불러 모았다.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글도 써서 학교 이 곳 저 곳에 붙였다. 그렇게 모인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합천에 갔다. 그것이 원폭피해자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합천 캠프에서 피해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난해서, 주위 사람이 권유해서,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묶여서’ 등 원폭피해자분들이 히로시마에 가게 된 이유는 다양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물리적 강제성에 의해 끌려왔거나, 일본의 잔혹한 수탈 때문에 먹고 살려면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히로시마로 가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피폭된 것이다.

솔직히, 합천에 있는 동안 애초에 피해자들이 ‘왜’ 발생했는지, ‘왜’ 정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들지 않았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받아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 ‘일’에만 집중했다. 내 눈앞에 어르신을 내년에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다닥 적기 바빴다.

캠프에 다녀온 후에는 성공회대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채록 모임인 ‘도토리’에 들어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술채록을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원폭피해 문제를 알렸다. 소모임 대표가 구술채록과 함께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나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다. ‘구술채록만 하러 다녀도 시간이 모자라겠구만, 무슨 공부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평통사 주관의 오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왜’ 발생했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요구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는지,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렇게, 군축, 반전의 가치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공부를 하며 지금까지 생각도 못해 본 질문들의 답을 천천히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가입했다. 가입했다고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거나, 아주 열심히 참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변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고민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액수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급휴직 처리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 노동자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나눈다. 그 이야기는 민들레 흩씨가 바람을 탄 듯, 약간 더 넓게, 더 멀리 퍼진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화제와 시선을 바꾼다.

지금으로선, 나는 평통사의 열심회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사랑 부는 바람이 되어서, 많은 흩씨가 퍼짐에 기여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퍼뜨리고 싶고, 앞으로도 퍼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바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열심회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만, 흩씨가 민들레가 될 수 있도록 부는 바람이 됩시다. 

# 효순미션 사건 경과와 과제

박석분 효순미션평화공원조성위원회 집행위원장,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평통사가 평화공원을 제안한 지 12년 만에 위선적인 미군 추모비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시민 추모비를 세우고 효순, 미선의 넋이 영원히 안식할 평화공원이 완공된다. 단순 교통사고로 문힐뿐 한 사건을 범국민적인 자주평화투쟁으로 일군 과정과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뤄내자는 한국민의 의지, 평화공원조성 취지와 경과를 담았다.

## #1. 부서진 소녀들의 꿈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던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평화공원 옆 도로)에서 생일잔치에 가던 조양중학교 2학년 신효순·심미선 양(15세)이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주민 홍기식씨(심미선양의 이모부)는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두 여중생의 형체가 완전히 묻개져 있었다고 증언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건리 사격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덕도리 진지로 가던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부교운반용 궤도차량(AVLM)이 맞은편에서 오던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불법적인 교차운행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미군 궤도차량의 폭은 3.67미터,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폭은 3.6미터였습니다. 도로의 한쪽 편 폭은 3.3미터로 교차 운행 할 경우 갓길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14조 3항)과 미군교범은 이 같은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안전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던 효순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던 미선이, 겨우 열다섯 두 여중생의 꿈은 56톤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도로폭보다 넓은, 56톤의 궤도장갑차가 갓길을 잡아먹은 사고 현장.





깨어진 아스팔트, 흔적을 덮은 모래,  
그리고 남겨진 여중생의 운동화 한짝.

## #2.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뻔 한 사건, 진상을 밝히다

사건 직후 미군들은 시신을 판초 우의로 덮어둔 채 한 시간이나 방치했습니다. 미군은 주민들의 접근도, 한국 경찰의 초동 수사도 가로막았습니다. 월드컵 열기와 지방선거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단신 보도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미군 훈련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유족과 주민 목격자, 경찰, 검안 의사, 교통문제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 사진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초기 대응은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은폐하려는 한미 당국의 기도에 맞서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 #3. 미군의 책임회피, 유족들의 현장조사 요구도 거부

6월 14일 밤, 미군은 사고현장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미군측은 도로 폭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고 궤도차량을 동원한 현장조사를 요구했지만 미군은 거부했습니다. 6월 19일, 미2사단은 “미군은 규정대로 운행했지만 길 폭이 좁아 갓길을 침범했고, 두 여학생을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며 미군의 과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주 오던 장갑차와 무리하게 교행했다는 한국 경찰의 자체조사 결과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6월 20일, 유족과 시민들은 미2사단 앞에서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미군 훈련 금지와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 여고생들은 집회에 참석하여 “동생들을 살려내라”며 눈물로 항의했습니다. 미군은 완전무장하고 어린 여고생들을 향해 총을 겨누기까지 했습니다.

6월 26일, 노동자, 농민, 교사, 대학생, 청소년, 종교인, 여성 등 1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장갑차여중생고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범대위)’를 결성했습니다.



“동생들을 살려내라” 미2사단 앞 여고생들,  
그들에게 겨누어진 미군들의 총.

#### #4. “우리도 응원하고 싶어요”

– 월드컵 응원 열기를 뚫고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

월드컵 열기에 언론도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4강전이 열린 6월 29일,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의 시민 속으로 들어가 두 여중생의 영정 사진이 담긴 “우리도 응원하고 싶어요” 피켓을 들고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우려와 달리 시민들은 “월드컵 열기에 묻혀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부끄럽다”고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홍보물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시신 사진이 담긴 추모 플래시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무려 100만회를 넘어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중생 추모 사진전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분향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건을 알리고 진상을 밝히는 일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러자 외면했던 언론들도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5. 100만명 이상이 참가한 재판권 이양 요구, 끝내 거부한 미국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미군들 주장에 분노한 유족과 국민들은 가해 미군들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은 주한미군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지만 한국 정부가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한미소파 22조 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과 여중생범대위는 사고차량 운전병과 통신병, 미 2사단장 등 미군 6명을 한국 검찰에 고소하고, 미군에게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붉은 악마들과 시민들의 분노, 여론을 바꾸다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요구에 여야 국회의원, 종교인, 지식인, 예술인 등 각계각층이 나섰고 10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한국 법무부는 미군 측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해 미군을 미 군사법원에 일방적으로 기소한 후 “미국이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며 재판권 이양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 #6. 한국민 분노에 기름부은 살인 미군에 대한 미군법원의 무죄 판결

2002년 11월 20일,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 군사법원(캠프 케이시 내)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까지 모두 현역 미군으로만 구성된 미 군사법원에서 통신병 페르난도 니노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2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통신병은 여중생을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통신장비 고장으로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재판 후 5일 만에 두 미군은 유유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재판을 참관한 권정호 변호사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군사법원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을 온몸으로 외친 시민들은 무죄판결 소식에 울분을 토하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한 날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가는 살인미군,



무죄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

## #7. “탱크라도 구속해” 분노한 시민들 촛불을 들다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가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에 국민적 분노는 사건 발생 당시 보다 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분노한 1만여 명의 국민들은 “아무도 죄가 없다면 탱크라도 구속하라”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 사거리로 모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부시 미 대통령 공개 사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12월 14일,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10만여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으로 진출하여 사상 최초로 미 대사관으 에워쌌습니다.

효순이의 아버지는 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였지만 미국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촛불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해외교민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19일, 촛불집회에 힘입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광장을 채운 시민, 자주평화의 촛불을 들다.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유족과 평통사

## #8. 유족과 평통사, 진상규명 위해 수사기록 공개 요구

평통사는 유족들과 함께 효순, 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2003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유족과 평통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끝에 2005년, 한국 검찰의 수사기록과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의 수사자료, 운전병과 통신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1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지검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의 CD와 현장 검증 비디오테이프 등 결정적인 자료들을 누락하거나 은폐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국 검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 두 여중생 투쟁을 이끈 사람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홍근수, 문규현, 고영대, 김종일, 김판테 등
- 민주노동당 : 이용대, 최근호, 이승현, 제종철 등
- 여중생범대위 소속 정당 및 사회단체들



사과도 처벌도 없는  
미국에 대해 분노하는 촛불,  
찢어지는 성조기



## #9. 수사기록 검토 결과 :

### 단순 교통사고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기록 자료들은 사건의 진상이 우발적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중생범대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는 의정부지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병 마크 위커는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통신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5년 6월 10일)

이는 “통신 장비 고장으로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통신병의 주장과 “사고 전에 통신병과 계속 통신했다”는 운전병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한 미 군사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궤도차량이 맞은편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차 운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음도 밝혀냈습니다. 지휘관인 중대장이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차량에 알리지 않는 등 지휘체계 상 중대한 과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기록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고 홍근수 상임대표와 고영대 공동대표



“미군들은 효순 미선을 볼 수 있었다”

## #10. “우리 손으로 미선효순 추모비를 세우자”

시민들은 해마다 6월 13일이 되면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촛불을 들었던 대한문이나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진상 규명을 비롯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잊지 않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불의의 사고”라고 적힌 위선적인 미군 추모비를 치우고 시민의 힘으로 진정한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6월 13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평통사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해 이를 안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이어 2010년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가 결성되어 2012년(10주기)에 추모비 ‘소녀의 꿈’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



아스팔트 추모제와 트럭에 실려다니는 추모비




2019년 평화공원 첫 삽뜨기.

런 지자체들이 추모비를 세울 공간을 내주지 않아 그 동안 추모비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서울시 서대문구) 마당에 세워 두었으며, 매년 추모제 때마다 트럭에 실려 사고 현장에 세워 지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추모비가 경찰에 의해 탈취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의 뜻과 정성으로 2017년, 사고 현장 바로 위에 미선, 효순이가 안식할 평화공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11. 미선효순의 안식처, 시민의 힘으로 평화공원을 세우다

사고현장 바로 위에 추모비를 안치할 평화공원 부지 매입 계약 후 열린 2017년 15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고 심미선 양 아버지 심수보 선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켜준 시민단체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에 밀거름이 돼서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9월 27일, 평화공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1월 19일, 미선·효순추모비건설위원회를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평화공원조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시민추모비를 사고현장에 세우기 위해 주한 미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군추모비를 미2사단 영내로 이전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 추모비가 문화재라며 문화재청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미군 추모비는 문화재가 아니며 문화재청이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미군추모비에 대한 철거, 이동은 한국 정부와 부지 소유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유족의 뜻을 반영하여 미군 추모비를 평화공원 부지 내 한 칸으로 이전하고 마침내 시민의 힘과 정성으로 효순, 미선이 영원히 안식할 평화공원을 2020년 6월 13일, 완공합니다. 

## 효순미선 사건의 의미와 과제

### #1. 대중적 반미투쟁의 새 지평을 연 효순미선 촛불

우리 국민들은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재판도 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효순미선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자주를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었습니다. 효순미선 촛불은 한미 당국자들도 인정하듯 한국전쟁 이래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참가하여 미국의 횡포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자주평화운동의 새 지평을 연 역사적 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효순미선 촛불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얼마든지 맞설 수 있으며 자주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 #2.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여전히 가려져 있는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당시 무리한 훈련을 지시한 주한미2사단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미국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 #3.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실현

한국이 미군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 때문입니다.

효순미선 사건에서 가해미군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미군이 공적인 업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한 한미소파 때문입니다(한미소파 22조 3항). 이 규정에 근거하여 미군은 한국의 재판관할권 이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효순미선 사건과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미군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해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책임, 탄저균과 같은 위험한 생화학 무기를 비롯한 무기 반입 시 사전 동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4. 효순미션 촛불 정신을 이어 자주, 평화, 통일 세상을 열자

두 여중생 압사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한미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하며,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등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아직도 갖고 있고,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액수의 미군 주둔비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관계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은 계속 침해당하고 평화는 위협받으며 통일은 가로막힐 것입니다.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여 분단과 전쟁을 끝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 효순미션의 낮은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효순미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의미

- 열다섯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억울하게 스러져간 신효순 심미션 두 여중생의 넋을 기리고 안식을 기원합니다. 미군범죄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를 위해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세운 국내 유일의 첫 평화공원입니다.
- 사건 현장 부근에 평화공원을 조성한 것은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도록 꾸몄습니다.
- 평등한 한미관계와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평화를 꽃피우며 통일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사 진행을 의논하는 정용진, 손기중, 김대송(왼쪽부터)

## “이게 평통사의 힘이구나!” 회원의 힘으로 만드는 효순미션 평화공원

인터뷰 정리 : 김은주 효순미션평화공원조성위원회 간사

효순미션 평화공원 기초공사가 끝난 5월 12일, 공사장 부근에서 김대송 익산 평통사 대표, 정용진 부천 평통사 사무국장, 손기중 부산 평통사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역사적인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이다. 이 날 지원을 나온 서울 평통사 신재훈 회원과 익산 평통사 김영호 회원, 박석분 효순미션 추모공원조성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김대송 : 18년 전이니까, 익산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 30대 후반이었네요. 그 후 효순이 미션을 생각하면 왠지 빚진 것 같았어요. 평화공원 공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받았어요. 일이 많았지만 제쳐두고 왔죠. 무엇보다 이 공원을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만든다는 데 뿌듯함을 느낍니다. 평화공원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완성되지 못

했는데 하루빨리 완공하는 데 힘이 된다면 해보자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정용진 : 저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효순미선 사건을 알리는 청년 실천단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알렸을 때 호응이 아주 높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방해공작이 들어오고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만 우려먹어라”고. 세월호 참사처럼요. 그래서 여중생 사건은 세월호 사건과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을 꼭 해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저는 평화공원 조성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본질을 알려나가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이 시민들의 힘으로 건설된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 제가 작은 재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 살 먹은 제 아들내미를 꼭 데려와서 이 공원 아빠가 지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손기중 : 2002년에 저는 월드컵에 흠뻑 빠져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효순 미선이가 사고를 당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평통사에 들어와서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미동맹의 문제를 실감하는 사건입니다.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서 효순 미선 사건을 다시 기억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끝내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공원조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공사현장 책임을 맡고 있어요.(김대송) 못 주머니 차고 김대표님을 도와서 비어있는 부분을,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정용진) 저는 공무 역할인데요. 설계에 나온 대로 구현하기 위해 공사의 단계마다 기본 틀을 잡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재 수급을 맡고 있습니다.(손기중)

#### Q. 건축 공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평화공원은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김대송 : 사고 현장에 떨어진 운동화 모양대로 공원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건축물은 직각 형태거든요. 땅 위에 원형 건축을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손 국장님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손기중 : 저도 원형 콘크리트 벽 조성은 처음입니다. 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개인적으로는 건축을 하는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텐데, 건



공사 전 안전거원식과 일손돕기에 나선 회원들

축기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해내고 나면 자신감이 아주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일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게 되니 감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해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데 그럴 못하니 참 아쉬워요.

정용진 : 6월 13일까지 완공을 해야 하니 일정은 촉박한데 마음만큼 진행이 되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일손이 부족하고 비까지 와서 공정이 어긋나면 참 답답하거든요. 벽을 세운 후에 작가들이 와서 작업도 해야 하니까 조금합니다. (김대송)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해낼 수 있어요. 김대표님 구호가 “한 번 해보자!”입니다. 매일 6시 반이면 어김없이 공사장에 나와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늦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해요. 비가 오면 일은 못 해도 걱정이 되어 나와 보세요. 이렇게 높은 책임감을 가진, 억척스러운 김대표님이 이 공사를 이끌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 Q. 공사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감동했던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김대송 : 기초 철근을 세워놓고 다음날 타설하러 왔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돌아보니 철근이 쓰러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나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무처 실무자들이 와주어서 다시 세웠지요. 그리고 비 때문에 토사가 무너졌을 때 서울 평통사 신재훈, 윤영일 회원이 와서 그 흙들을 손으로 다 퍼내고 물청소까지 해주었을 때 “이게 평통사의 힘이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공원 조성 뿐 아니라 평통사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는 회원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평통사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통사 상근자들과 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용진 : 3D 조감도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멋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실측을 해보니 예상보다 너무나 규모가 작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후에 좀 더 규모를 키워 웅장하고 큰 공원으로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소개하고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서울 평통사 회원인 변연희 선생입니다. 양주에 사시는데 격일 근무하시면서 근무가 없는 날은 언





부족한 일손을 돕는 서울, 성남용인 회원들

제나 현장에 찾아와 필요한 걸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현장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요. 효순미션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손기중 : 현장 여건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지 모양도, 경계도 공사하기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고 운동화 모양이 나왔을 때 뭐랄까, 안도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했는데 모양이 나오니 뿌듯했어요. 저도 회원들이 합심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또 한 번 배웁니다.

#### ㉔. 마지막으로 효순미션 평화공원을 찾아올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손기중 : 효순미션 평화공원은 우리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손님이 아니라, 그래야 자주 와보고 주변에 알려서 공원을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원이 만 들어지면 주말에 탄 데 가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오셔서 쉽도 얻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산 평통사 회원들은 가족과 함께 6월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추모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정용진 :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 평화공원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건 효순미션 촛불의 4대 요구(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파개정, 미국의 공식사과)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통사가 추구하는 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일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을 경주하면 미래는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대송 : 저는 이 공사를 내 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현장에 와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와서 함께 일하고 먹으면 단결도 더 잘 될 겁니다. 효순미션 평화공원을 주말농장처럼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후에도 회원들의 힘으로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김영호 : 저는 평통사 회원이 되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늘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공사현장에 문규현 상임대표와 고영대 공동대표 등 회원들의 응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신재훈 : 우리 추모비를 세워놓을 곳이 없어서 참 많이 옮겨 다니고 경찰에 뺏기기도 했지요. 2002년에 벌어진 일이라 잊혀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모아져서 평화공원 완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평화공원이 세워지면 미군추모비 대신 우리 추모비를 영원히 세워둘 텐데 이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 삼을 뜨고 흙을 나르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도리어 고맙습니다.

박석분 :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공사를 회원들의 기술과 재능 기부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건 고영대 공동대표입니다. 그게 시민의 힘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취지에 맞겠다고 했죠. 효과는 놀랍습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어요.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공사가 평통사 회원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 투쟁을 일으키고 이어온 평통사의 역할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효순미션 평화공원은 미국에 의한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최초의 공원이에요. 노근리 평화공원이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의 자주적인 모금으로 진행되는 효순미션 평화공원과는 구별됩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전개된 시민모금은 마치 엘리야의 기름처럼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효순미션 평화공원은 효순미션 또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현장학습 장소로 많이 방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19 여파 때문에 6월 13일 행사 규모와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규모와 형식이 되든 효순미션 평화공원 완공식은 진행할겁니다. 벽화가 미쳐 완성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벽의 부분은 비어있다 하더라도... 18주기 추모행사는 2002년 촛불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그것이 사실은 한미동맹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극복하는 그날 비로소 효순이와 미선이를 위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사과정은 효순미션 카페 (<http://cafe.daum.net/sinsim2002>)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 광주평통사

광주민중항쟁 40주년 기획전시  
'오월에서 통일로 평화로'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광천터미널 영풍문고 앞(5/17~24)과 금남로 알라딘 서점 앞(5/25~29)에서 '오월에서 통일로 평화로' 기획전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전쟁 70년, 피폭 75년이라는 계기에 맞춰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과 통일을 향한 투쟁의 역사,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와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을 담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1인시위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회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기획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정동석 |

## ♥ 군산평통사

온라인 정기총회 준비모임



운영위원들은 정기총회 준비모임을 했습니다. 2019년 사업과 재정을 감사받고 2020년 더욱 힘찬 출발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루빨리 회원들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협정 폐기 촉구  
인증샷



코로나-19로 회원들과의 만남이 뜸해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담은 카드뉴스를 함께 보며 회원들과 현 정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운옥 대표가 회원들의 일터에 직접 찾아가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인증샷을 함께 찍는 실천활동과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 최소영 |

## ♥ 나주평통사

### 정기총회 준비모임



4월 20일 나주평통사 정기총회 준비모임이 열렸습니다. 먼저 '사드 이동·추가배치에 위헌·위법'이라는 현안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학습을 통해 평통사 방향과 실천활동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점은 성과이나, 회원이 줄고 일상활동이 정체되는 등 조직운영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사무국장 사임 후 주요활동을 운영위원들이 나눠 맡아 하기로 했으나, 각자 생활여건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점을 평가하며 일상활동 재정비와 회원확대 계획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현영 회원이 사무국장을 결의했고, 이정훈 대표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회원 연락을 분담하여 총회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 대구평통사

### 사드부지 공사 중단! 불법사드 철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사드 배치 3년 임시 배치 상태의 소성리 사드를 정식 배치로 둔갑시키기 위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해 사드 부지 공사(설계 및 탄약고 건설 등)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드철회평화회의에서 5/6~29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대구 평통사 회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외에 천명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의 전용을 전면 차단하고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기지 공사의 중단과 불법 사드를 철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구총회 준비모임



5월 17일, 코로나19로 지연된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오랜만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11일(목)을 총회 날로 정하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정동석 |

| 이기자 |



## ♥ 목포평통사

### 총회 준비 운영위원회



5월 14일 목포평통사 5기 8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6차 정기 총회를 6월 12일 저녁 7시에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총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한미동맹 허물기 목포지역 특화사업으로 제3함대 미 이지스함 입항, MD 훈련 감시 및 대응에 나섭니다. 앞으로 격주 목요일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와 공부모임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 피켓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기 촉구 인증샷



김종수 대표님이 담임하고 있는 목포 산돌교회 외 여러분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협정폐기 촉구 인증샷을 찍어주었습니다. 인증샷 찍기에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정동석 |

## ♥ 보령평통사

### 보령평통사 운영위원회



5월 13일 농민회관 3층에서 4월 22일 총회 때 새로 인선된 4명의 운영위원을 포함 총 9명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오랜만에 운영위원회를 풍성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정기총회 회의록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령 평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할 것을 모든 운영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운영위원들은 방위비분담 협상중단 협정 폐기 촉구 인증샷을 함께 찍었습니다.

앞으로 보령평통사의 다양한 사업들을 책임질 운영위원들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례모임 겸 공부모임

5월 20일에 보령평통사 정례모임 겸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지도위원의 강의를 통해 효순 미션을 압사시킨 미군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안하무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을 조성하기까지 평통사의 투쟁과정과 노력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게되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6월 13일 평화공원 완공식에 함께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공부모임 후에는 보령평통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권진복 |

## ♥ 부천평통사

### 효순미선 평화공원 공사 지원



올해로 18년, 2002년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드디어 올해 효순미선 평화공원이 조성됩니다. 평화공원 조성공사에 재능 기부에 나선 부천 사무국장이 매일 공사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흥봉헌 회원도 기꺼이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함께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6월 13일 드디어 조성된 평화공원에서 18주기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평화공원 조성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월례 실천



5월 월례 실천은 사무국장이 부재한 속에 운영위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월례 실천의 주제를 방위비분담금과 핵무기금지조약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되어 다음에는 한 가지 주제로 조금 더 친절하게 준비하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눈에 더 잘 보이게 준비한 "핵무기 싫어!" 머리띠 소품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 주정숙 |

## ♥ 순천평통사

### 순천평통사 운영위원회



4월 24일 순천평통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드 이동, 추가배치의 불법성"에 관하여 운영위원 교육을 정동석 사무국장이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찬영, 문영태, 배영준님이 사임하고, 김대성 목사님, 지영일 건설 노동자, 장복식 하늘씨앗교회 교우님이 새로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기금 모금을 위해 순천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를 방문하여 평화공원 조성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평화행동



매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과 "사드배치의 불법성"에 관해 홍보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경수 |



## ♥ 부산평통사

### 합창홀씨 연습 재개



6월 13일에 열리는 효순미선평화공원 18주기 추모제에 부산평통사 평화홀씨 합창단이 초청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5/12(화)부터 합창단원들이 모여 연습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효순미선 콘서트에서 불렀던 〈소녀의 꿈〉 외 2곡을 부릅니다.

연습을 마친 뒤, 새로운 합창단원들과 함께 방위비반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기 촉구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 비핵평화 조례 제정 모임



4/24(금) 비핵평화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도용희 시의원과 시의회 박성호 박사, 이의용 전위원장이 조례 발의를 위한 내용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이나 7월 회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5/11(월)에는 도용희 시위원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비핵평화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부산시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활동입니다.

### 청년모임

부산평통사 청년모임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꾸준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고 모임 운영을 논의합니다. 5/16(토)부터는 청년 심화학습을 매주 토요일마다 평통사 20년 기록과 전망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 6월 평화발자국



2020년 2차 평화발자국이 〈운동화 속에서 촛불로 피어난 평화〉라는 주제로 6/13(토)~14(일) 1박 2일 동안 가족캠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후, 무건리 사격장~덕도리 진지(사고장갑차 행로), 스토리 사격장, 낙검자수용소를 돌아보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 월례 평화행동



5월 17일 일요일 서면에서 부산 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월례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유수진 |

## 미대사관 앞 1인시위



4월 중순경부터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미대사관 인근 KT 건물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세 곳에 자리를 잡고 24시간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을 때는 세 명이지만, 많을 땐 20여 명 정도나 되고, 목탁을 두드리거나 엠프를 틀어 놓고 계속 입에 담기도 저급한 말들을 쏟아내며 평통사 1인시위를 방해합니다. 그래도 서울 평통사는 곳곳이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햇수로써 벌써 5년째인 미대사관 앞 1인시위에 함께하실 분은 신청 바랍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운영위원 몇몇이 함께 나갑니다.  
(문의 | 윤영일 노동분회장. 010-2507-4230)

## 2030 청년모임

5월 30일(토), 2030 청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 청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고용한국노동자 무급휴직에 관한 단체들의 기자회견문과 논평을 서로 비교하며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월 1회 모임으로는 학습이 부족해 청년들을 묶어서 보충 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평통사 운영위원회



18차 온라인서면약식 총회를 마치고 4월 23일과 5월 8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하고, 학습계획도 정해 각자 자료도 읽고 돌아가며 발제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드 관련하여 청와대에 보낸 질의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사드배치 3년, 소성리 주민 응원 영상 메시지



서울청년모임에서 소성리 사드배치 3년을 기억하며 소성리 주민들을 응원하는 청년 인증샷 영상을 만들어 소성리에 보냈습니다. 영상을 본 주민들께서 아주 감동받고 고마워하셨습니다.



## ♥ 인천평통사

### 새롭게 시작하는 회원 모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회원 실천팀, 청년음악 동아리, 지상의 평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 인천평통사는 온라인 서면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올해 회원들의 일상모임을 만들고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성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모임, 청년들의 음악 동아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실천모임은 매주 1회 피켓팅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기로 하고, 매월 1회는 10명 이상의 회원들과 거리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리 캠페인은 음악, 영상을 곁들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동훈 청년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한 음악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준비를 통해 회원들과 시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상의 평화모임에서는 월 1회 '지상의 평화 월례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이야기를 천주교 미사를 통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천주교 신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첫 월례미사는 5/27(수) 저녁7시 천주교 노동자센터 3층(동암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일축하 손편지 쓰기



매월 운영위원들은 회원들에게 생일 축하 손편지를 씁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회원들에게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손편지를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손편지를 받은 어느 회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어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생일카드를 받고 감동 받았어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무언가 답답했던 날, 인천평통사 생일카드에 너무 감동 받았어요"라며, 생일카드를 받은 회원의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의 성원에 비하면 작은 실천임에도 회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묵묵히 인천평통사에 성원해 주시는 회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장윤성님, 허필자님, 김소망님

| 유정섭 |

## ♥논산계룡모임

### 논산계룡평통사 준비모임



5월 19일 화요일 논산계룡준비모임 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따뜻하고 잔잔한 생활나눔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원실천의 날을 매월 1회 진행하고 출근길 1인 피켓시위를 수요일 아침, 월 2회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박석분 조직위원장의 평통사 정세 교육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법은? 안주면 돼!", "사드 발사대 이동, 추가 배치 실행 중"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회원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참여의 열기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규회원으로 차경선님, 배형택님, 김선덕님께서 가입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 변혜숙 |

## ♥대전충청모임

### 화상으로 충주음성제천모임 재개

5월 18일 저녁, 코로나로 미뤄져온 모임을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직접 모이지는 못하고 ZOOM을 통한 화상 모임으로 진행해 화면으로라도 서로 인사와 근황을 나누니 반가웠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분노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페이스북 등에서 소식 퍼트리기 등을 해보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유영재 |

## ♥성남용인(준)

### 단합모임



코로나로 3,4월 동안 활동을 쉬고 5월 9일 회원단합모임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10명이 참석한 단합모임은 최병철 운영위원이 맛있게 고아 낸 옷달을 최회원의 텃밭 원두막에서 나눠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고 활동의지를 다짐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효순미선 평화공원조성 공사 지원

5월 16일 효순미선 평화공원 공사자원봉사를 서덕석, 최병철 두 회원이 다녀왔으며 성남용인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음료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최병철 회원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현장 사정을 듣고 귀가하지 않고 상시 지원을 위해 남아서 계속 공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기 촉구 1인시위



5월 11일부터 방위비분담금 규탄 1인시위를 야탑역 광장에서 평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덕석 |



# 회비와 후원금

(2020. 0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중앙평통사

[김연 및 중앙회비] 강만길 강경주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진 김귀옥  
김동원 김명래 김상열 김성한 김용순 김운순 김정수 김태인 김형배 김홍수  
노혜정 문규현 박상복 배종열 배현철 변희영 유영섭 이규영 이상진 이성호  
이옥숙 이일영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장경옥 전성식 전사우 정경훈 조상수  
조은숙 최혜성 홍영진 황병태 황호영  
[정기후원금] 강수혜 김일희 김광열 들꽃향린교회 전주남문교회 향린교회  
향린청년남신교회 향린교회하남 KIMJUNGH 하늘평화공동체 조민희 이현숙  
조문자 양동일 림구호 박덕환

## 광양평통사

강삼언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박수완 박영실 배영일 신덕희 신유순 신장환  
안성은 안정주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상수 이정재 이종재 이현아(서영원)  
이희정 전진희(천우주)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전덕미 최 열 황미경

## 광주평통사

강경식 강세웅 강숙향 강은미 강지연 강준원 고영인 고익종 고재한 구가연  
권경희 기원주 김가영 김경민 김광관 김광종 김기남 김기만 김기현 김달아  
김덕용 김덕우 김동열 김동우 김동호 김문석 김미숙 김미영 김미진 김민선  
김민정 김민호 김보향 김범중 김병문 김상철 김신미 김선호 김성룡 김수영  
김수하 김순홍 김순식 김승원 김아영 김영배 김영석 김영식 김예지 김옥희  
김용근 김용록 김용호 김유빈 김은구 김은정 김은진 김재중 김 정 김점성  
김정은 김종식 김종필 김지호 김진수 김진환 김태완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태 김혜련 김혜선 김홍길 김화순 김효경 김희용 김희정 나윤상 노진영  
노혜민 류만숙 류승환 명경관 문홍식 박광희 박기웅 박갑원 박다현 박상은  
박상진 박상희 박석우 박석구 박선이 박성수 박수희 박오열 박운수 박일남  
박재영 박재국 박종영 박종우 박준열 박지영 박태순 박현제 박형아 박효성  
박홍환 배우호 배민혁 배아영 배진하 백영일 백지은 백희정 변하연 서경호  
서광진 서기웅 서부원 서일권 서준환 서진영 서현미 성창우 손민석 손수영  
송규완 송기철 송미숙 송순교 송진철 송진환 신경구 신경희 신영호 안 민  
안 석 안영숙 안호철 양 동 양민철 양성수 양승집 양영우 양혜은 양혜주  
연진우 오공희 오복록 오승근 오정아 오창규 우승관 위유민 위환복 유시훈  
유영열 유중현 유도영 유봉남 유순호 유유식 유종남 윤지자 윤정자 윤태원  
윤현식 윤현철 이근규 이경진 이광철 이교창 이귀임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희우 이다혜 이대실 이미희 이민정 이병석 이병일 이석주 이성재 이수경  
이승호 이영선 이영주 이영형 이용대 이용빈 이용주 이용희 이우원 이윤정  
이은수 이정록 이지하 이진수 이철우 이태훈 이현수 이호동 이훈구  
임광식 임대영 임미이 임성수 임세미 임정희 장관철 장동식 장성훈  
장재란 장 조 장유리 전경일 전 전택상 정경자 정규영 정길주 정덕운  
정동석 정보형 정성국 정성호 정세완 정순진 정순임 정시영 정영모  
정유리 정종득 정찬영 정진호 정선성 정현우 정형달 조규성 조명근 조순호  
조성식 조용근 조용석 조현도 조효숙 주경미 진종화 차승세 천재선 최경미  
최경환 최기호 최동수 최동환 최봉진 최선동 최성돈 최연호 최혁득  
최정현 최지현 표경식 표영민 홍광복 홍기원 홍상대 홍영애 홍요한 홍인희  
황근택 황창근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군산평통사

강인숙 고광식 고동식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남기 김봉옥 김상덕  
김상영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우수 김원호 김진환 김태철 김형곤  
박기하 나신환 남대진 노승민 문성주 문순임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국현  
박운옥 박현동 배현원 서대성 서동환 선진숙 송상규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옥경진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이계택 이명렬 이명로  
이봉호 이선희 이애란 이옥선 이종인 이지훈 이진우 이천호 이현철  
이희정 임은숙 임은혜 임정원 임종희 임홍연 장미애 장재순 전희남 정 민  
정성민 정국진 정지숙 조경수 조규준 조영환 조종우 조인호 조판철 주호균  
(문규옥) 진인하 채영호 최강민 최경자 최소영 최은주 최은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현기석 황 진

## 김제평통사

권태정 김미라 김상봉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영주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화 김형기 김형예 김형택 이만근 나현균 남금윤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명배 박원옥 소광식 손은하 신동우 안진상 오인근 유재환 이경용  
이소정 이소정 이영구 이윤민 이은경 이현숙 이희곤 전미영 정현모 정형국  
최종일 하성애 황혜정

## 나주평통사

강현옥 강경호 강광복 김병곤 김성호 김영민 김요섭 박선재 박성태 박정현  
박철순 소 영 안보현 안주용 안희만 양이화 양한열 이득택 이 연 이용범  
이재창 이재휘 이정훈 이현영 장승연 장재영 정만식 정소성 정윤자 정희만  
조성현 최기준 최진영 홍기숙

## 대구평통사

강현옥 고경수 고희림 광영은 구연우 구자숙 권순덕 권옥희 권재호 권주연  
금정숙 김경화 김기국 김기웅 김대성 김덕기 김도은 김명환 김미라 김미정  
김영길 김성희 김성국 김성태 김수경 김영숙 김영순 김영은 김영진 김경미  
김정수 김종희 김지남 김찬수 김호준 김효남 나미숙 노영옥 노익화 문혜경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소단 박영하 박영희 박재범 박주현 박진식 박철주  
박태정 박형선 배소라 배인연 백미연 서보성 설동현 손만철 손영준 송철환  
신복실 신영돈 신효철 안주연 안현수 양정희 오신택 오형섭 오현희 오혜란  
우정순 유은정 유은정2 유재복 유지수 유창영 윤화일 윤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분 이기자 이동수 이미경 이병수 이상구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영훈  
이은수 이인옥 이재호 이정연 이종근 이종준 이종희 이종원 이종식 이진련  
이창주 이태광 이희일 임정금 임현정 장성대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대 정용섭 정종득 정종호  
조규현 조유연 조현정 주경봉 차상혁 천영희 최봉태 최석인 최진영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기영 함수연 허정호 허래남 홍상옥 황병은 황철식

## 목포평통사

강성휘 강 신 강원구 강현식 고정석 권해경 김경희 김관일 김금숙 김기중  
김나리 김동규 김무영 김민지 김석원 김예리 김영재 김용철 김재홍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태동 김현아 김현우 김현아 김현우 류경성 류경성  
마상진 문성훈 문희정 박기철 박삼준 박서근 박 웅 박종찬 박진경 박종성  
백동규 변철진 서만철 손낙순 손민원 손지은 송원찬 송철호 신재범 신현중  
안광미 양현주 여인두 염경숙 오승주 유현영 유현영 윤소하 윤영배 윤영배  
이경수 이경훈 이구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선재 이윤이 이종환 이종희 이지용  
이현숙 임동용 임원택 장금희 장미경 장세원 정석기 정성우 정성창 정영록  
정우담 정찬길 조기형 조상현 조영규 조창익 최경민 최경식 최기중 최성숙  
최은기 최진호 최철환 최 훈 한미경

##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식 권순현 권진복 김기중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정주 김충식  
김진수 남미자 류남식 백은영 상형구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미경 오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범석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종현 이희원 이희원 정수정 최병성 추동선 한광수 황대연

## 부산평통사

강문성 강새나 강장아 강한들 경노현 공순은 광광덕 광상진 권수진 권순환  
권 일 권정미 권장아 권창훈 김강일 김건우 김경석 김경태 김광수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희 김덕자 김문진 김민지 김민정 김현주 김현이 김영배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김용판 김 욱 김유중 김윤자 김은영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재연 김재홍 김종이 김주희 김지영 김지은 김태훈 김해영 김해영  
김현봉 김현호 김형관 김형경 김훈구 남승우 남원철 남태호 노정현 노라지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경서 박다은 박광부 박석분 박성호 박성일 박성자  
박순찬 박순호 박정임 박정인 박정하 박종권 변재호 서금성 서미숙 서유연  
서은실 서충배 서진화 설정희 서기석 성은화 손기중 송정자 신경희 신석균  
신수정 신순태 신양범 신연아 신자범 신자범 신창신 신영현 신영현 신영현  
안종덕 양윤정 양은희 양현호 양하나 양하나 엄귀현 엄병중 여승철 여영국  
오영환 오홍식 온배움터 우수경 원무현 원형은 유수진 유재규 유호철 유준근  
윤종렬 윤해정 이강식 이기성 이덕순 이덕순 이석익 이상익 이상익 이상익 이상익  
이영림 이우영 이우성 이의옥 이의진 이재만 이점숙 이준희 이진호 이창환  
이태재 이학진 이혜선 이희진 임상진 장우담 장호봉 전나미 정성진 정성진  
정영은 정원옥 정익현 정임출 정혜경 조광호 조병준 조병준 조보고라 조형래  
진승희 차성호 차정인 채희원 최무택 최병학 최준태 최 진 하경숙 하지림  
한석문 한소영 허남철 허재봉 황구하 황도은 황성운 황용재 황철환 황희경

## 부천평통사

강상진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권한관 권현만 권희진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우 김미영 김석환 김성용 김성훈 김수철 김숙희 김숙희2 김애연  
김용관 김용상 김정은 김정호 김주영 김지숙 김진경 김현주 김혜영 노은하  
노형욱 류진남 문종열 민경신 박경원 박석민 박성경 배영미 서소복  
서혜숙 석익정 설정숙 성명은 순무수 송준호 송기부 신용철 신정길 신영섭  
오용근 유승우 윤용환 윤점미 이도영 이성우 이승자 이영아 이은영 이종주  
이준호 이진희 이현구 이현주 이혜연 임숙영 임종영 정혜경 정근수 정미숙  
정선화 정승숙 정용진 정은희 정인주 정현희 정희복 조기대 조숙희 조영숙  
주영일 주영자 주정숙 지상철 지태봉 차성호 천수향 최성희 최정규 최희준  
허민영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황종현 황홍순

## 서울평통사

강대곤 강대준 강보향 강수혜 강원원 강영옥 강우규(2개월) 강윤미 강주산  
(2개월) 강효석 강영준 강광호 강영우 강연주 강동길 강노현 권원호 구석경  
구자숙 권순걸 권순현 권영모 박 욱 권장희 권재세 권지숙 권현목 권해인  
김경남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기원 김대성  
김동훈 김명일 김미경 김미영 김미영 김성곤 김세관 김석균 김선희 김성연  
김성훈 김수선 김안수 김영곤(2개월) 김영모 김영애 김영애 김영애 김영애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우창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윤미 김윤미  
김은이 김익원 김인아 김일수 김지현 김지현(2개월) 김정현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종한 김지수 김 진 김진근 김진환 김종태 김태준 김한성  
김혜선 김해인 김향자 김현애 김현진 김화순 김효식 김희국 김희현 나현(반  
양신) 나현대 나해영 남미영 남택우 도인방주 류미아 류은숙 류효진 류희숙  
림구호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희경 민성호 민 영 민영미 박경희 박복희  
박상희 박진미 박은복 박은주 박종민 박종민 박종민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해철 박해정 박해진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주희(2개월) 배준실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영진 서예원(2개월) 서유미 서인규 서정례  
서진희 서창석 서창호 선소진 선순단 선영일 손우정 손정목 송금심 송민영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신필중 신해솔 심소연 안건모 안병순  
안희욱 양계탁(2개월) 양금숙 양현일 양민석 양소주 양원진 어익선 여해숙  
연선민 오근갑 오기성 오낙영 오덕순 오미정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우미정  
우미정 우성란(2개 월) 원옥호 유나리 유영철 유재영 유중석 유영철 윤근섭  
윤동현 윤수애 윤영진 윤영진 윤은섭 윤정원 윤호상 이경목 이경호 이종국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모 이기영 이도주 이두우 이봉국 이상기(이영은 이상미 이상연 이상재 이선호 이선재 이상환 이수정 이형수 이수철  
이순희 이숙무 이아름 이애용 이영옥 이영주 이 윤 이재갑 이재필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종수 이혜진 박승렬 이화정 임동원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장혁 임진영 임태환 임효일 장경도 장기준 장남희 전기호  
전근규 정광진 정길경숙 정상현 정성임 정소연 정수애 정수원 정영훈 정영진  
정은선 정준영 정호천 조계성 조선금 조은호 조창현 조화순 주혜원 진유식  
차정운 채근식 채운석 최대목 최문숙 최정원 최상솔 최석희 최성민 최승운  
최승훈 최하람 최형환(2개월) 최 원 최형철 최향숙 최현민 한문태 한성기  
한성욱 한석희 한현실 한호석 허명석 허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정희  
홍창의 홍희덕 황근석 황희도 황순하 황 완 황윤미 황철우

#### 순천평통사

고성식 공훈표 김경수 김귀진 김대성 김동구 김동수 김병태 김 석 김영곤  
김용태 김우석 김이준 김민철 김정교 김중성 김중안 김준희 김하성  
김현주 김형석 김호승 류보은 문영태 문영훈 문재경 문형렬 박광남 박귀주  
박미옥 박민근 박병석 박상숙 박선택 박성훈 박영주 박옥희 박정훈 박종삼  
박종삼 박종열 박종태 박종택 박찬형 박찬형 박필수 박형주 배경섭 배진택  
순승삼 송금숙 송기경 송형일(박태기) 신기홍 신원식 신한유 안병일 안수근  
안성영 오복록 오정훈 오대훈 오하근 우영미 유병우 유옥상 유진이 유성진  
윤창진(원국섭) 이거라 이귀영 이규학 이기호 이인재 이성대 이애란 이옥자  
이종출 이춘식 임이정 장복식 전성필 정길중 정상호 정안호 정영동 정현호  
정용훈 조대훈 조영식 조종철 조희열 지영일 최미나 최병래 최성진 최성진  
최희진 한혜영 허규희 허남필

#### 안동평통사

김성주 고정희 권영희 김대성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새롬 김수동 김예숙  
김옥희 김재권 김장식 김경희 김종렬 김지식 김재현 김판갑 김한택 김희배  
류준우 류한정 민현주 박무식 박용재 박재근 박종규 배용한 손현택 신성일  
여상화 오복훈 윤미지 이병현 이성로 이영우 이우원 이천우 이 창 이혜선  
임극수 장세길 전경상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차명숙 한철희 황지영

#### 익산평통사

고은순 곽은경 김대숙 김강웅 김영재 김영호 김유순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노영래 류일렬 민 찬 박두식 박영신 박영천 박영희 박용호 박은경  
박지현 박창신 박해영 배병옥 백낙진 서 용 송동한 신귀백 신경희 안영록  
안순 안현석 오기주 유태동 유희택 이근수 이병식 이봉이(조원일) 이상문  
이석근 이윤신 이은경 이정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화춘 임택균  
장종수 전미영 전호정 정수진 정운성 정용용 조가비 채미진 채운석 최미애  
최미화 최민욱 최영미 최원진 최재철 최재철 최원혜 홍지훈 황영하 황의성  
황인철

#### 인천평통사

김영신 강병수 강영구 고보선 고상혁 고영남 고준호 곽준경 구동훈 권세영  
권순국 권창식 권혁호 김갑봉 김강영 김경민 김경선 김규식 김기수 김도율  
김동진 김두원 김명환 김명희 김명희 김미경 김민서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김선미 김성규 김성만 김성식 김성태 김소희  
김 수 김숙희 김승태 김시환 김영순 김유석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익규 김익숙 김인경 김일중 김일희 김재용 김정원 김정자 김성하 김중갑  
김중록 김중호 김중호 김주숙 김준태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김지훈 김지찬  
김전수 김현식 김현숙 김현주 김현호 김형욱 김형진 김혜정 김효목 김희경  
남두남 남인현 류미애 문경근 문봉호 문선희 문영준 문하나 박광선 박광선  
박근칠 박남수 박달수 박동범 박영옥 박미정 박병신 박세원 박순길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옥희 박용희 박원재 박우순 박은주 박인호 박정숙 박정운  
박종익 박 진 박진용 박창현 박창훈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소병옥 손선재 손애자 손정민 손현철 송경평  
송서우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신미경 신원수 신윤례 신현범 신희철 심신아  
심옥민 심이성 심자섭 안영원 안대건 안소숙 양승조 여영석 오수정 오종춘  
오창근 오태호 오혁환 오혜영 우민선 원 웅 유근석 유성규 유영선 유정섭  
유원철 유진석 유한경 이형성 이화정 유선숙 유영성 윤화식 이강희 이광혁  
이경원 이기은 이덕래 이만재 이무용 이미경 이미정 이범철 이병훈 이상훈  
이상로 이상은 이세근 이수진 이숙희 이순철 이숙희 이언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순 이은영 이은진 이은희 이재솔 이재우 이정숙 이정욱  
이정화 이재학 이종민 이창근 이창우 이찬지 이춘식 이혜민 이현규 이현숙  
이현소 이형수 이희경 이희정 이수범 임강민 임경희 임동렬 임민재 임민재  
임병구 임재훈 임지유 임희호 장경선 장광수 장귀국 장동훈 장세운 장영애  
전혁구 정명락 정명숙 정미자 정서진 정승호 정시호 정유성 정현숙 정희서  
정희진 조강희 조경숙 조남숙 조성혜 조승호 조은숙 조은주 조인재 조태호  
주민식 주수남 주용택 지성용 지현국 지현민 진재환 최리주 최리주 최병중  
최복래 최서일 최승규 최정수 최 웅 최창수 최정국 최종락 최준배 최지수  
최현숙 최현호 필갑빈 허가자 하태준 한상균 한상숙 한상원 한신복 한현숙  
한영순 한재수 한정수 한현진 한홍준 홍 종 홍학기 황병태 황선하 황인철

#### 전주평통사

강가현 강대권 고내희 고이석 고차원 곽동순 국 산 국윤호 권동용 김두성  
김민준 김성환 김여진 김영호 김은자 김재병 김정임 김주진 김진석 김중만  
김태순 김호숙 김희찬 나영숙 노재하 문이경 민해경 박기순 박성열 박수배  
방용승 백기룡 백혜영 봉형근 서경희 서광호 서민서 서 승 서은숙 소춘수  
송기훈 송미영 송호영 심병호 심 훈 안경자 양동훈 양희진 임경희 오봉록  
원명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섭 이기환 이등백 이등주 이상민 이상열  
이승희 이연숙 이영환 이인규 이재호 이초희 이지는 이형구 임애림 임용진  
임익근 장종철 전상호 전소자 전형석 정기봉 정기철 정영훈 조경희 조미순  
조정자 조장현 전호성 최금희 최영숙 최용기 최인규 최재훈 최정옥 한근수  
허만순 황대성 황재현

#### 해남평통사

강태희 강정자 강태양 김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병옥 김상영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곤 김은숙 김점섭 나성근 노 란 문재식 문형학 민경진 박병을  
박석중 박승규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박태정 배충진 백종수 백형진 봉문수  
부영석 안소희 안종기 안국재 양동숙 양상희 엄재연 오성재 오영택 오은숙  
윤영아 유문식 윤상환 윤영식 윤예준 윤준서 이무진 이병채 이상규 이원열  
이영열 이정학 이종관 이훈재 임현석 임현선 장미호 장우광 정거섭 정경철  
정진아 주단우 최신영 최영수 최은숙 한강희

####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 대전충청 지역 회원

가명현 강기현 강홍순 강희운 고광성 구본중 권현영 김용수 김용수 김경숙  
김규태(대전) 김기현 김도 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성미 김성중  
김선미 김성희 김영순 김오경 김재길 김진양 김진숙 김홍일 김홍수  
김홍수(아산) 나백주 남누리 노정래 류기환 문성호 문양로 민학기 박노찬  
박노찬 박상연 박성화 박성화 박연정 박원중 박필규 백영기 변혜숙 서남철  
서명희 서후배 석수진 성광진 순희희 송광선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호  
신주희 신현옥 신현정 심규자 심상무 심우근 심주호 안창호 양은택 양은영  
오대현 오수진 오원근 오용석 유관형 유단비 유성호 유영석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환 유희상 윤병민 윤상렬 윤여진 윤필화  
윤필화 윤요권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기훈 이도구 이득우 이병영 이병구  
이세중 이수연 이숙주 이애지 이요한 이우근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재욱  
이종영 이주호 이진민 이진규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임동수 임병연 장도정  
장도정 장명진 장민백 장창성 장영미 전유미 전혜련 정명진 정성현 정승길  
정은선 정창식 정현영 정태호 조동준 조룡상 조만연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진 조영주 조재현 조주형 차인기 채승병 최만정 최영민 추교화 푸종교희  
한기영 한상열 함필주 허연 홍지은 황영식 황의대

#### 부산 지역 회원

강성숙 김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철필 김  
호순 문영란 문유신 박상석 박지우 송봉삼 윤동주 이도선 이태석 임재택 정  
상철 정영환 정종석 정진록 재미라 최병삼 최종률 홍석주 홍용식

#### 전남 지역 회원

강덕구 강복현 기숙희 김광식 김대환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은희 김형재  
김현지 김황식 김희태 니옥석 노병남 노형태 류준신 박경옥 박경희 박광은  
박동하 박동우 박종재 박진숙 박태연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오대형 유원식  
유원숙 유구현 이광수 이승현 정은정 조동근 채일순 최 성 최순옥 최은애  
한창덕

####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관일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 평택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권승륜 권재광 김교원 김상용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용한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박재정 서명식 신종원 연창호 연형만 오영미  
이기영 이기수 이수용 이상진 이은우 이진희 이혜준 정인교 조병식 차지아론  
와라관 추병태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근 한성진 황영선

#### 평화통일연구소

[미사회비] 강정구 김일희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숙  
계 임종철 정규영 조현정 최소영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혜 강윤미 고희림 권기석 권순철 권진복 권현영  
김강연 김관일 김금옥 김대성 김대숙 김미령 김미정 김성태 김숙희 김숙희  
김시환 김영식 김영재 김영철 김유옥 김은주 김중우 김중우 김중희  
김 현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효남 남궁갑 류승하 문규현 민경숙 박경  
수 박병을 박복희 박상준 박상희 박석민 박성진 박성진 박영희 박영희 박하  
영 박해철 변연희 서경혜 서종환 손범수 손윤희 손중옥 신재현 신재훈 신성  
아 심자섭 오미정 오종호 오해란 유영재 유정숙 유영준 윤영일 이진규 이진  
옥 이기자 이미경 이미정 이석민 이선영 이서로 이양진 이영재 이우성 이은  
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는 이형수 이혜연 임민희 임주희 장남희 전예  
경 정근수 정동서 정동식 정수경 정승창 정승현 정영태 정영태 정향란 정현  
희 조미향 조승현 주은형 주정숙 최병삼 최윤정 하태준 한성기 한승동 한혜  
영 함수연 허명석 홍기원 황윤미  
[특별회비] 김재송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회비 명단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알려주세요

## 2020년 3월 결산보고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정기회비	30,713,000	① 인건비	13,580,000
② 정기후원금	1,100,000	② 운영비	6,010,430
③ 부정기후원금	2,735,500	보험료	50,000
④ 사업수입	1,520,000	복리후생비	1,657,350
⑤ 기타수입	1,535,500	비품비	0
⑥ 전월 이월액	23,761	사무용품비	346,950
⑦ 차입금	3,000,000	수도광열비	623,320
		임대료	2,000,000
		정보통신비	193,380
		지급수수료	1,139,430
		차량유지비	0
		③ 사업비	6,453,220
		교육훈련비	389,600
		도서인쇄비	1,507,980
		도서자료구입비	12,000
		발송비	988,820
		실천사업비 <sup>1)</sup>	333,960
		연대사업비 <sup>2)</sup>	850,000
		청년사업비 <sup>3)</sup>	912,330
		홍보비	44,000
		회원사업비 <sup>4)</sup>	1,383,280
		④ 지원경비	10,130,000
		지역교부금	8,690,000
		지역모임지원금	840,000
		자원활동가 지원금	600,000
		⑤ 부채상환 <sup>5)</sup>	3,289,560
		⑥ 갑손실/예비비	0
		⑦ 잔액(3/31 통장잔액)	1,164,551
합 계	40,627,761	합 계	40,627,761

### \*수입부 설명

① 회비 : CMS 납부회비 30,113,000원 + 자동이체 회비 600,000원 ② 정기후원금 : 들꽃향린, 향린, 전주남문교회, 하늘평화공동체 ③ 부정기후원금 : 박유순 감사, 강수혜 회원, 이철호 ④ 사업수입 : 대관(서울평통사 월세) ⑤ 기타수입 : 총회장소 대관료 환불, 송금오류 환불 등

### \*지출부 설명

① 실천사업비 : 1인시위, 기자회견 ② 연대사업비 : 권유하다 기금, 사드반대 성주, 김천 지원, 문중원 열사장례위, 임방규 선생 부인 장례, 민중공동행동 회비 등 ③ 청년사업비 : 청년자원활동 프로그램 ④ 회원사업비 : 전남지역, 김제/논산/평택지역 ⑤ 부채상환 : 상근자 2월 경상비 미지급분 상환

\*부채현황 : 24,241,000원 ① 회지인쇄비 ② 스타렉스 차량할부금 ③ 차입금

## 2020년 4월 결산보고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정기회비	29,908,000	① 인건비	14,500,000
② 정기후원금	1,500,000	② 운영비	7,795,100
③ 부정기후원금	1,110,000	보험료	1,523,460
④ 사업수입	4,660,000	복리후생비	1,544,730
⑤ 기타수입	208,290	비품비	177,320
⑥ 전월 이월액	1,164,551	사무용품비	235,300
⑦ 차입금		수도광열비	521,170
		세금과공과	40,000
		임대료	2,000,000
		정보통신비	409,530
		지급수수료	1,243,590
		차량유지비	100,000
		③ 사업비	4,975,006
		교육훈련비	150,000
		도서인쇄비	1,000,000
		도서자료구입비	12,000
		발송비	776,570
		사업출장비 <sup>1)</sup>	56,300
		실천사업비 <sup>2)</sup>	114,900
		연대사업비 <sup>3)</sup>	626,102
		청년사업비 <sup>4)</sup>	1,229,280
		홍보비	86,534
		회원사업비 <sup>5)</sup>	855,320
		회의비	68,000
		④ 지원경비	10,070,000
		지역교부금	8,760,000
		지역모임지원금	1,010,000
		자원활동가 지원금	300,000
		⑤ 부채상환	0
		⑥ 잡손실/예비비	0
		⑦ 잔액(4/30 통장잔액)	1,210,735
합 계	38,550,841	합 계	38,550,841

### \*수입부 설명

① 회비 : CMS 납부회비 29,728,000원 + 자동이체 회비 180,000원 ② 정기후원금 : 들꽃향린, 향린, 전주남문교회, 하늘평화공동체 ③ 부정기후원금 : 강수혜, 김일희 ④ 사업수입 : 대관(서울평통사, 연구소 월세), 49재단 공모 등 ⑤ 기타수입 : 소송료 반환 등

\*부채현황 : 24,241,000원 ① 회지인쇄비 ② 스타렉스 차량할부금 ③ 차입금

### \*지출부 설명

① 사업출장비 : 지역 출장 ② 실천사업비 : 1인시위, 기자회견 ③ 연대사업비 : 전태일50주기행사, 제주강정, 사드반대 성주 김천 지원, 김세진열사 34주기, 민중공동행동 회비 등 ④ 청년사업비 : 청년 서울공모사업 자부담 ⑤ 회원사업비 : 전남지역, 김제/논산/평택지역, 회원경조사



---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7933-1581 김경수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중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한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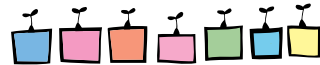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번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0년 5월 25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 효순미선평화공원 완공식 18주기 추모제

**2020. 6. 13(토) 오전 11시 30분**

**효순미선평화공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43-3, 4)**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6월 13일**

**드디어 효순미선평화공원이 완공 됩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열원을 상징

순수한 민간의 자주적 힘으로 조성되는,  
미군범죄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한 첫 평화공원

시민들의 모금과 기술, 기능기부로 시공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꾸미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로 밝혀

**평화공원 모금 계좌 | 국민은행 011201-04-185740 효순미선**

**온라인 모금 | <https://www.tumblrbug.com/20200613>**

**문의 |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 02-712-8443**